

1월 소비자물가는 2.0% 상승

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.0% 상승

<'26.1월 주요 물가 지표>

(전년동월비, %)	총지수	식료품에너지제외	농산물석유류제외	생활물가지수	신선식품지수
'25.12월 → '26.1월	2.3 → 2.0	2.0 → 2.0	2.3 → 2.3	2.8 → 2.2	1.8 → △0.2

'26.1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하락폭 확대·축산물 도축량 증가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전년동월비 2.0%(12월 2.3%) 상승했다.

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2.0%(12월 2.0%) 상승했고,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비 2.2%(12월 2.8%) 상승했다.

향후 국제유가 변동성, 겨울철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,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 특히,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.

<별첨> '26.1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민경신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연정은 (jey0903@korea.kr) 사무관
			사무관	최규철 (kyuchul84@korea.kr)

1. 주요 내용

1 [소비자물가] 전년동월비 2.0% 상승 ('25.12월 2.3%)

(%)	'25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6.1
전년동월비	2.2	2.0	2.1	2.1	1.9	2.2	2.1	1.7	2.1	2.4	2.4	2.3	2.0
전월비	0.7	0.3	0.2	0.1	△0.1	0.0	0.2	△0.1	0.5	0.3	△0.2	0.3	0.4

- 농축수산물 물가는 배추·무 등 채소류 하락폭 확대와 돼지 등 축산물 도축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어 2.6% 상승(12월 4.1%)

* 전년비(%): <농산물> 2.9→0.9 (곡물) 15.7 (채소) △6.6 (과일) 2.1 <축산물> 5.1→4.1 <수산물> 6.2→5.9

-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며 전년비 보합(0.0%)(12월 6.1%)

* 휘발유 가격(원/리터) : ('24.11)1,628 (12)1,654 ('25.1)1,709 / ('25.11)1,718 (12)1,740 ('26.1)1,704
경유 가격(원/리터) : ('24.11)1,461 (12)1,497 ('25.1)1,564 / ('25.11)1,619 (12)1,650 ('26.1)1,600

-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 상승률 유지에도 외식 제외 오름폭이 축소되며 2.8% 상승(12월 2.9%)

* 전년비(%): <외식> 2.9→2.9 <외식제외> 2.9→2.8

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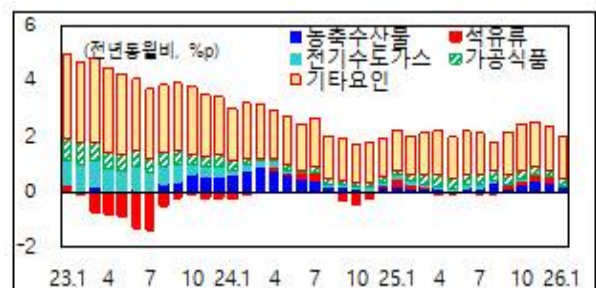
품목별	상승률(%)	전체	농 축 수산물	공업 제품	석유류	가공 식품	전기·가스 수도	집세	공공 서비스	개인 서비스	외식	외식 제외
'25.12월	전년동월비	2.3	4.1	2.2	6.1	2.5	0.4	0.9	1.4	2.9	2.9	2.9
	(기여도, %p)		0.3	0.8	0.2	0.2	0.0	0.1	0.2	1.0	0.4	0.6
'26.1월	전년동월비	2.0	2.6	1.7	0.0	2.8	0.2	0.9	1.6	2.8	2.9	2.8
	(기여도, %p)		0.2	0.6	0.0	0.2	0.0	0.1	0.2	1.0	0.4	0.6

소비자물가·근원물가



* 자료: 국가데이터처

물가기여도



* 자료: 국가데이터처

② [근원물가] 개인서비스 상승폭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2.0% 상승('25.12월 2.0%)

*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근원물가로서,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,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'25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6.1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1.9	1.8	1.9	2.1	2.0	2.0	2.0	1.3	2.0	2.2	2.0	2.0	2.0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2.0	1.9	2.1	2.4	2.3	2.4	2.3	1.9	2.4	2.5	2.3	2.3	2.3

③ [생활물가] 식품(과실, 축산물 등) 오름폭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2.2% 상승('25.12월 2.8%)

*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

** 생활물가지수(전년동월비, %, '25.12→'26.1월): <식품>3.3→2.8 <식품이외>2.4→1.8

(전년동월비, %)	'25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6.1
생활물가지수	2.5	2.6	2.4	2.4	2.3	2.5	2.5	1.5	2.5	2.5	2.9	2.8	2.2

④ [신선식품] 신선과실 오름폭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△0.2% 하락('25.12월 1.8%)

* 신선어개(생선·해산물), 신선채소, 신선과실 등 계절·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

** 신선식품지수(전년동월비, %, '25.12→'26.1월): (신선과실)5.2→2.0 (신선채소)△5.2→△6.6 (신선어개)6.9→6.2

(전년동월비, %)	'25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6.1
신선식품지수	0.7	△1.4	△1.3	△1.9	△5.0	△1.7	△0.5	2.1	△2.5	△0.8	4.1	1.8	△0.2

2. 평가 및 대응

- [평가] 1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하락폭 확대·축산물 도축량 증가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전년동월비 2.0% 상승(12월 2.3%)

< (참고) 주요국 소비자물가 >

	한국		미국	영국	일본	OECD	EU
	'26.1월	'25.12월	'25.12월	'25.12월	'25.12월	'25.11월	'25.12월
소비자물가(% 전년동월비)	2.0	2.3	2.7	3.6	2.1	3.9	2.3

- [대응]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, 겨울철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,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

- 특히,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로 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을 선제적 차단